

### 7월의 기도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브리서 5:8-9)



1. DCEM이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 드립니다. 총재 조용기 목사님께서 2014년 해외성회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2.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기쁨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 2014년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 성회 준비 가운데 DCEM과 모든 준비 기관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으사, 각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4.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5. 주님 안에서 꿈과 소망을 갖고 이 땅의 빛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아멘

### DCEM 성회안내

2014년 9월 25, 26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조용기 목사 초청  
"Lord, Revive Russia" 성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뜨거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복음동경교회, 오사카순복음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장로님께서 후원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양호, 김정환, 김태승, 나인규, 순복음정릉교회 조종숙 목사, 안희순, 오주봉, 이형춘, 원소선, 정낙숙, 정경자, 조양자, 최인철, 한선희, 함석숙, Esther Han, Thomas&Sally Jarvis 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외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 조용기 목사의 특별 메시지

### 좋은 생각의 씨앗

영국의 존 메이저 수상은 매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16살이 되었을 때 학교를 중퇴하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공사 현장에 노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새벽부터 공사 현장에 뛰어 들어 콘크리트를 반죽하면서 두세 시간 새벽일을 하고 간단한 토스트로 아침 식사를 대신했습니다. 어린 시절을 이처럼 어렵고 고생스럽게 보낸 그는 결국 영국의 수상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기자들은 그에게 고난의 세월을 어떻게 극복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때 메이저 수상은 "저는 그 어떤 상황에서든 비관적인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항상 희망을 갖고 일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집니다. 하늘은 표정이 밝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에게 복을 내려줍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좋은 생각의 씨앗을 심어야 장차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좋은 생각의 씨앗은 기쁘고 행복하고 복된 현실로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생각은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나의 삶 속에 현실로 나타납니다. 과거의 생각은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현재의 생각은 미래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속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실현되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속에 꿈꾸고 있는 꿈이 내일에는 반드시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과거의 죄를 용서받고, 현재에 새 사람이 되어 미래의 꿈과 소망을 믿음으로 구할 수 있으니, 바로 우리의 생각 속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 운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마음에 밝고 긍정적인 생각과 꿈을 품음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꿈들이 이뤄지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July News Letter

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 순복음동경교회

창립 37년 된 순복음동경교회, 일본인에게 희망의 빛 전해  
'지저스페스티벌' 등 총재 조용기 목사 성회로 부흥 일어나



일본의 기독교 복음화율은 개신교 155년의 선교역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0.8% 정도에 머물러 있다. 이 안에 가톨릭 신자의 수도 포함이 되어있는 것을 감안 하면 개신교인은 일본인구 전체의 0.5%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을 거쳐 간 많은 외국의 선교학자들은 하나같이 일본을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표현한다. 종교의 자유는 주어졌지만, 복음의 뿌리는 좀처럼 내려지지 않는 것이 일본선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를 통해 37년 전 순복음동경교회를 세우셨다.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통한 긍정적인 신앙으로 순복음동경교회는 영적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일본인들에게 복음을 통한 소망의 빛을 비추어 왔다. 물질만능주의와 편리 제일주의 속에서 삶의 희망을 잃은 많은 일본인들이 순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 살아계신 야훼 하나님을 만났다. 37년간의 세월 동안 순복음동경교회의 부흥과 발전에는 많은 어려움과 도전들이 끊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본이천만구령

이라는 비전을 통해 동경 최고 중심부인 신주쿠에 하나님의 교회를 우뚝 세우셨고, 동경에 거주하는 많은 일본인들과 한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선포 되어지고 있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지저스페스티벌(Jesus Festival) 등을 통해 꾸준히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성도들을 위로하여 왔으며, 특히 동일본대지진 바로 이후에 열린 2011년 동일본지체유대성회는 지진의 충격에 빠져있는 일본의 성도들을 위로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 순복음동경교회는 매일 같이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교회, 성령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일본 내에서도 서서히 그 영적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지난 3년간 순복음동경교회는 모든 것에 있어서 '내실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사역에 전념하고 있다. 구역의 내실화, 예배의 내실화, 또한 직분에 대한 내실화, 그리고 교역자들은 사명에 대한 내실화에 집중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순복음동경교회는 일본 제일의 교회 그리고 순복음동경교회의 성도



가 일본 제일의 성도들이 되는 것이 목표이다. 제일이라는 것은 외적으로 보이는 성도수나 교회 규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화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성도 한 명 한 명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순복음동경교회는 일본 내에도 다른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돕는 일에 전력으로 참여할 수가 있으며, 이는 곧 일본 일천만 구령을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굳게 믿고 있다. 또 그 귀한 사역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끊임없이 전진해 나아가고 있다.

# 위로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찬송하리이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이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중략)...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 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장 3~11절>

합에 향유를 채워 가져갑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고급 향유로 가득 채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와서 ‘탁’하고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을 위해 다 부어버렸습니다. 시집을 가기 위한 귀한 지참물인 향유를 다 부어버렸으니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 부어 버린 것입니다. 그녀는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나머지는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칼을 펼쳐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예수님을 쳐다보는 그녀의 얼굴에는 환희가 넘쳤습니다.

### 1. 예수님과 위로

마가복음 14장 6절로 8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 보여준 자신에 대한 감사와 흠모의 정을 느낀 것이 굉장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14년 국내 10대 트렌드’ 중에 하나가 ‘위로가 필요한 사회’라고 합니다. 고용이나 주거, 노후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면서 힐링이나 멘토, 상담과 같이 불안을 달래주는 ‘위로 산업’이 발달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런 유행을 반영하듯 실제로 길거리에서 외롭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프리허그(Free Hugs)’ 즉 “공짜로 안아드립니다”라는 행사가 열리기도 합니다. 외롭고 괴로울 때 따뜻한 가슴으로 품어주는 것은 큰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가로저음으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도리도리 인형’도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세상살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로우면 이런 것들이 유행일까요? 이런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필요로 하지만 정작 위로를 얻을 곳이 없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 2. 사도 바울과 위로

사도 바울은 많은 사도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삶을 통해 큰 위로를 받아 수없이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참기 어려운 고난이라도 성령님의 위로가 임하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심한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난 다메섹의 체험과 셋째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말씀을 들었던 체험의 특별한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것이 마음에 있어 큰 위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고난과 동등한 위로도 허락해 주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고난과 위로 이 두 가지가 항

상 같이 합니다. 고난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고난이 있으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위로가 다가옵니다. 고난의 쓴 물이 다가오면 위로의 단물도 다가옵니다. 고난의 슬픔이 다가오면 위로의 기쁨도 다가옵니다. 진정한 위로는 성령과 말씀을 통해 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위로가 되고 말씀을 공부할 때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마음에 위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위로 없이는 고난을 견디고 이겨나갈 수는 없습니다.

### 3. 서로 위로하라

오늘날 사람들은 비난과 공격의 말로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줍니다. 우리는 사랑과 이해와 칭찬과 동정으로 위로하기에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사랑을 베풀고 이해를 베풀며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데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누구든지 위로를 받아야 위기의 순간에도 전진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깁니다. 위로 받으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위로를 받지 못하고 고난만 당하면 희망을 잃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용서받아 거룩케 되는 위로가 되고 병든 자에게는 고침의 위로가 되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면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을 주는 위로가 되고 죽음 앞에서는 부활과 영생 천국의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참된 위로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입니다. 낙심한 자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의 은혜를 주신 이가 성부 하나님이요 성자 예수님이요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므로 두고 보십시오.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이번 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훨씬 좋아지는 것입니다.

# “1800만 직장인들에게 복음을”

## DCEM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해 뜨거운 성령 역사 속에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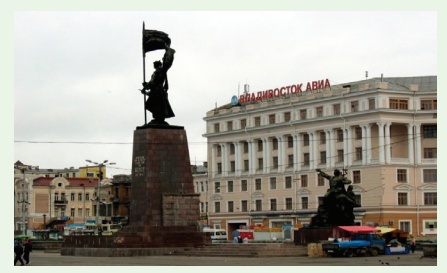


제29회 초교파 전국 직장인 및 일반성도 초청 금식기도대성회가 7월 8일부터 12일까지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에서 ‘내가 고통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시 118:5)를 주제로 개최됐다. 이번 금식기도대성회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직장선교회 소속 신우회원들, 일반성도 및 초교파 성도들이 참석해 더운 여름의 열기도 있게 만드는 은혜의 강물 속에서 기쁨의 찬양과 기도를 드렸다. 이번 성회를 주최한 (사)순복음실업인선교연합회 직장선교회 회장 전권식 장로의 개회선언 및 금식선포로 열린 개회예배에서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마음을 지키라’(잠 4:23)

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조 목사는 성경의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는 구절을 인용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하며 마음의 문이 되는 생각, 꿈, 믿음 그리고 말에 대해 설교했다. 조 목사는 믿음은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라며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4차원의 영성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 사실을 깨달아 마음을 지키고 자신의 운명을 다스릴 것을 당부했다.

이번 성회에 참석한 이지현 권사는 “직장 금식 성회를 통해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몸이 약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제대로 금식기도를 해 본 적이 없다. 그러나 이번 성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기쁨 속에 금식기도를 할 수 있었다”며 말씀에 큰 힘을 얻었다고 고백했다. 초교파 전국 직장인 및 일반성도 초청 금식대성회는 해마다 소속 신우회들이 여름휴가를 이용해 직장인과 개인의 꿈과 비전을 찾자자 참석하고 있다. 또한 직장인 신우회가 없어 고민하는 직장인들과 기존의 신우회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직장선교회가 나서서 함께 고민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기도해주고 있다.

## 성회지역 미리보기



2014년 9월 25, 26일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를 주강사로 “Lord, Revive Russia” 성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성회는 러시아 목회자 및 교회 지도자를 대상으로 열리는 성회로서, 오랫동안 러시아 목회자들이 기도모임으로 조용기 목사의 러시아 방문과 성회를 간절히 사모하고 준비해왔었다. 성회가 열리게 될 지역인 ‘블라디보스톡’(Vladivostok)은 ‘동방을 지배하라’라는 뜻이다. 동해 연안의 최대 항구도시 겸 군항이다. 소련 극동함대의 사령부가 있는 해군기지가

며, 북극해와 태평양을 잇는 북빙양 항로의 중점이며, 모스크바에서 출발하는 시베리아 철도의 중점이기도 하다. 1856년 러시아인이 발견하였으며, 그 후 항구와 도시의 건설이 시작되었고, 1872년 군항도 니콜라옴스크에서 이곳으로 옮겨왔다. 1890년대부터는 무역항으로서 크게 발전하였으며, 1903년 시베리아 철도가 완전히 개통됨으로써 시베리아를 횡단하여 모스크바와도 이어지게 되었다. 블라디보스톡은 군항일 뿐만 아니라 무역항의 기능도 가지고 있었으나, 현재는 무역항의 기능이 시의 동쪽

약 90 km 지점에 신설된 나홋카항으로 옮겨졌다. 현재 러시아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사실상 러시아 정교회를 국가 종교로 인정하고, 여타 개신교 교파를 서방의 경제적 원조를 받는 서구 이데올로기 선전의 앞잡이라는 의미의 ‘분파(sect)’라는 경멸적인 용어로 통칭하며 억압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의 개신교 탄압은 개신교의 종교 활동 방해와 법제화를 넘어서 언론을 통한 대국민적 반 개신교 정서 확산으로까지 이어져 그 심각성이 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용기 목사의 러시아 성회는 개신교 목회자들 및 영적 지도자들을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귀한 성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러시아 성회를 통해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온 러시아에 임함으로써 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기도한다.